

## 마리아 데 사야스의 『모범 연애 소설』과 페미니즘

임 주 인  
서울대학교

Lim, Ju-In. (2002). *Novelas ejemplares y amorosas de María de Zayas y el feminismo*. *Revista Iberoamericana*, 13, 253-272.

Las mujeres en la literatura española del siglo XVII se han descrito como fuente del mal. Esta percepción tendría como base la noción cristiana al pensar en la mujer como un instigador para degenerar al ser humano, seducida por el demonio. La posición misógina creada en la escritura de varios autores, proviene de la Inquisición y el Concilio de Trento, que contribuyeron en la atmósfera anti-femenina en España. Pero la imagen generalizada sobre la mujer o el estereotipo tradicional de la mujer como el mal se representa no sólo en la literatura española, sino también en la de otros países europeos, como en la francesa o la italiana. Especialmente, el asunto histórico y folklórico llamado por “caza de hechicera” se ha derivado de la imagen negativa de la mujer; es decir, la noción de que la mujer es un ser maligno en sí mismo. El tema de hechicería también se deriva de este misoginismo de la época, pues la persecución contra la hechicera es también en contra de las mujeres como esposa o hija, que los hombres consideran como un ser amenazante al orden patriarcal.

En este sentido, H. Patsy aclara la correlación entre la hechicería y el género de discriminación. Entonces, ¿es la mujer una hechicera que manipula al hombre o es un ser manipulado por el hombre? María de Zayas, novelista femenina de la época barroca en el siglo XVII, trató de destruir el estereotipo de la mujer descrita por los maestros masculinos de su época. Aunque el estudio de María de Zayas no da una respuesta decisiva a la pregunta, la observación sobre este texto elegido nos hace posible proponer el cambio de la percepción masculina en cuanto al sexo. Al tener en cuenta que la mujer de su época no puede tener voz propia en la esfera social,

política y religiosa, no es tan sorprendente la imagen de la mujer descrita generalizadamente en la literatura. En este sentido se destaca el esfuerzo de doña María en no aceptar esta noción masculina sin resistencia alguna. Mientras que en el Siglo de Oro, los escritores expresan su temor y el odio hacia la mujer, que amenaza al sistema patriarcal y tradicional, en la novela de María de Zayas derriba la relación directa entre el mal propio de su naturaleza y la fuerza sobrenatural de la magia diabólica por medio de la inversión del papel sexual. Mientras escritores prolíficos y conocidos proporcionan una atmósfera confusa y misógina, que no es difícil discriminar de la realidad, y dan paso a la actitud hostil hacia el sexo femenino, a través de la magia y el acercamiento a la noción de que la mujer es fuente de mal en sí mismo. María de Zayas trata de crear la combinación de la percepción negativa sobre la mujer basada en el sistema patriarcal y la realidad incluyendo su mensaje feminista.

A través de comparar el punto de vista generalizada sobre la mujer de novelistas masculinos como Cervantes con el femenina y desafiador de María de Zayas, intento reflexionar sobre el característica del discurso femenino y la reinterpretación sobre el honor basado en la vista masculina. Además nos damos cuenta de que en la novela de María de Zayas, sin tener en cuenta el sujeto de usar magia, las mujeres son inevitablemente culpable por su sexo inherente en la sociedad patriarcal. En este sentido, María de Zayas, con la ironía de mantener el argumento a base del discurso ofrecido de los maestros masculinos, derriba la construcción tradicional en cuanto al sexo y refuerza su mensaje feminista. María de Zayas demuestra con la voz de Lisis, narrador del cuento de marco, cómo es maltratada la mujer inocente en nombre del honor vacío tanto en la realidad como en la literatura. Aunque el uso de magia y la imagen de mujer como mal inherente siguen al discurso precedente, la novela mímica de María de Zayas acusa la crueldad, la injusticia y el prejuicio del hombre contra la mujer en vez de sostener el orden patriarcal.

## I. 서론

17세기 스페인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여성상들은 우리에게 한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고 파멸시키는 악의 원천인가? 이러한 의문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보다 대립적인 양상으로 구체화된다. 여성은 남성들

을 조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남성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자인가? 여성들은 악의 근간인 마법을 부리는 자인가, 아니면 마법에 걸린 자인가? 마떼오 알레만 Mateo Alemán이 『구스만 데 알 파라체 Guzmán de Alfarache』에서 아내를 남편에게 있어 최악의 적이라고 본다든지, 루이스 데 공고라 Luis de Góngora가 여성에게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조롱한 것, 그리고 궤베도 Quevedo가 『사기꾼의 인생 la Vida del Buscón』에서 여성의 덕과 지적인 자질 양면을 모두 공격하는 것, 그리고 발파싸르 그라시안 Baltasar Gracián이 여성을 악의 원천으로 파악한 것 등이 그 예가 된다.<sup>1)</sup>

시몬 드 보봐르 Simone de Beauvoir는 여성이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며 사악한 존재라는 인식이 남성을 자아, 여성을 타자, 즉 남성의 주변적 존재로 보려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녀는 부권제의 문화 속에서 남성이나 남성다움이 긍정적인 것 혹은 규범으로 세워지고 여성이나 여성다움은 부정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비규범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여성은 다른 모든 인간들처럼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로부터 스스로를 어떤 다른 신분의 인간, 타자라고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처한 상황인 것이다.<sup>2)</sup>

그녀에 의하면 여성은 타자성을 강요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서 자아 지향적 충동을 느끼면서도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보봐르가 언급한 것처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성중심적인 사고, 즉 남성을 자아, 여성을 타자로 보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시 사회적으로 타

1) “안토니 마라발 J. Antonio Maravall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원인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찾고자 한다. 그는 17세기가 스페인 제국의 몰락과 혼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멸과 불안정의 주도적 감정이 질서 정착을 주도하는 가치 체계와 사회 조직에 의해 여성 종속과 자유의 박탈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Sandra M. Foa, “Femenismo y forma narrativa: Estudios del tema y las técnicas de María de Zayas y Sotomayor,” *Hispanófila* 4, Valencia, Alvatros, 1979, p.85

2) Simone de Beauvoir, *Le Deuxieme Sexe*, 강명희 역, 『제2의 성』 하서, 1995, p.164.

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마녀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유추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마녀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시화한 극단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되면서 사탄이 여성들의 사악함을 이용하여 마법을 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생각을 부추겼고, 여성은 마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된다. 실제로 톨레도에서의 종교 재판의 75% 이상이 여성이 연루되어 있었는데,<sup>3)</sup>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패시 보이어는 “마법과 성차별의 문제는 마법에 대한 박해가 사실상 여성에 대한 박해라는 점에서 중요한 페미니스트적 이슈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여성들은 마법과 연루되면서 이웃의 가족들의 죽음이라는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남성의 성교불능 *impotencia*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악재의 동인 動因이 되고 그 비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란 선천적으로 사악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마법과 여성과의 관련성, 특히 절대왕정이 그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 체제 전복의 위협적 존재로 등장한 ‘마녀’의 이미지가 어떻게 가부장제의 전통적 가치관을 위협하는 사악한 여성의 이미지와 연관되어지게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마녀가 여성과 어떤 점에서 공통된 이슈로 작용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남성 중심적 담론에서 타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여성의 존재가 사야스의 소설에서 어떻게 독립된 자율적인 주체로 새롭게 자리 매김 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 II. 지배문화와 민중문화의 매개자로서의 마녀

마녀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여기서는 엘리트 문화와 민중문화의 상호관계가 상보적인가, 혹은 상충적인가 하는 두 문화 사이의 헤게모니 관계에서 마녀의 등장을 파악한 뒤상블레 Robert Muchembled의 견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그는 민중문화가 중세에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다가 절대주의 국가의 문화 통일 정

3) Patsy H. Boyer, “The War Between the Sexes and the Ritualization of Violence in Zayas’s Disenchantments,” *Sex and Love in Golden Age Spain* New Orleans: University Press of the South, 1996, p.87

책에 의해 변질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민중 문화가 변질되게 된 배경에는 사회 변동에 편승한 민중의 불안과 공포가 자리잡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오랜 전쟁으로 영토가 황폐해지고, 중세의 세계관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민중들은 나병 환자나 흑사병 환자, 걸인이나, 집시 등 사회 주변인들에게 모든 재앙의 원인을 돌려 심리적 상실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리상의 발견이나, 흑사병의 발병과 그로 인한 인구의 감소 등 혼란한 상황은 희생양을 요구하게 되고 마녀사냥은 민중들의 주변인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당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마녀는 다각적인 위기의 시대에 유대인이나 문둥이와 같은 주변부 집단들로 육체적으로 고립되거나 추방당하면서 ‘악마-모슬렘의 왕-유대인-문둥이의 사슬’은 종교적·정치적 당국자들이 대량으로 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일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사슬에 마녀가 관련되게 된 것이다. 유대인-문둥이-마녀로의 점차적 이행이 등장하면서 마녀사냥은 중세 후기 사회 경제적·도덕적 위기의 징조로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주변부 집단의 분리나 추방의 일환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열광적인 민중의 호응에 힘입어 마녀들은 사회 전복의 음모를 꾸미는 적대적인 집단으로 몰려 추방되었다. 따라서 마녀사냥은 시골의 농민들이 국가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게 만들고 사회 제도의 변화 등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민중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회적 불만을 억제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광범위한 운동의 일부로 볼 수 있다.

16, 17세기에 가난한 과부나 노파 그리고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은, 마을 사람으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아왔지만 장원제의 쇠퇴와 더불어 다양한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들은 더 이상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전까지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빈자들에게 자선과 도움을 주는 전통과 관습이 있어왔는데, 중앙집권의 공고화를 위한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가난한 과부와 노파들은 마을의 부담스런 짐이자 국가질서의 위협적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국가에서는 무조건적 구걸을 금했던 반면 교회에서는 여전히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고무하던 애매한 상황 속에서 민중들은 대중적 구제가 사라져 가는 현실과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종교적 양심 사이에서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서 이러한 죄책감이 단순히 심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마녀 박해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것을 그 여인들의 보복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마녀로 취급하면서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고 그들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결국 마녀와 마법에 대한 비난은 16, 17세기에 경제 변화에 수반된 개인주의적 행동과 마을 공동체의 오랜 윤리적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이웃 간의 자선 행위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마법이란 자력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힘없는 구성원들, 즉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절감한 마녀들의 남성 사회를 향한 보복의 한 형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마녀사냥은 지방분권 체제 속에서 꽃피웠던 다양한 민중 문화가 중앙집권체제의 절대국가에서의 획일화된 문화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가차원에서의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문화의 통일'이었던 것이다. 이런 통일정책으로 인해서 민간전승 속에 실재 존재하였던 관행, 관습, 신앙들을 악마적으로 변형되었고 민중 문화의 일부로 친근했던 마녀는 사회불안을 무마시키려는 당국의 의도대로 사악한 종교집단으로 변모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악한 마녀는 누구나 될 수 있었고,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사회악의 총체적 존재였던 것이다.

셰익스피어도 마녀를 가부장적 체제에 대한 위협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맥버드 Macbeth』에 등장하는 세 명의 마녀들은 맥버드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한다. 이들의 말을 불경스럽다고 치부해버리는 맥버드와는 달리 그의 부인은 마녀들의 말이 실지로 현실화될 것을 확신하면서 반역을 꿈꾼다. 절대 왕정 시대 왕의 존재가 가부장적 체제의 핵심을 차지한다고 볼 때, 왕을 죽이고 대신 그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부추기는 마녀의 모습에서 가부장적 체제를 위협하는 악의 총체적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중세시대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전통<sup>4)</sup>으로 인해 '사랑의 묘약'을 만드는 마녀들이 문학 속에 많이 등장한다. 페르난도 데 로하스 Fernando de Rojas의 셀레스티나 Celestina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실지로 종교 재판에 회부된 마법사들 중 상당수의 마녀가 '사랑의 중재자'란 죄목으로 고소당했다.<sup>5)</sup> 세르반테스의 「개들의 대화 Coloquio de los perros」에

4) Lea는 스페인에서의 마법이 주로 유대인들과 모슬렘인들의 점성술, 땅 점(Geomancia), 그외의 제식에서 비롯되어졌다고 주장한다. Henry C. Lea, *A History of the Inquisition of Spain*. 4 vols. New York: Ams Press, 1966, p.180.

등장하는 가니싸레스 Cañizares의 마녀들의 소행에서도 사랑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마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실수로 순결을 잃어버린 아기씨들을 감쪽같이 치료해 주었고, 불명예스럽게 된 과부들은 정절로서 감추어 주었다. 또한 결혼한 사람들을 갈라 놓기도 하고, 그녀가 원하는 사람들을 결혼시키기도 했다.<sup>6)</sup>

성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마녀들이 주로 여성이었다는 점이 당시 남성들이 여성을 성서에 나오는 이브나 살로메처럼 관능적이고, 남성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사악한 존재로 보는 동인(動因)이 되기도 하였다. 민간 문화 속에 녹아 있는 마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성(性)적인 부분에서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들이 악마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더 부각된다. 그렇다면, 마리아 데 사야스는 남성 작가들이 묘사하는 악의 총체적 이미지로서의 마녀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 III. 마녀상을 통해 본 성(gender)의 의미

#### III.1. 「사랑의 힘 La fuerza del amor」와 희생양으로서의 여성 이미지

마리아 데 사야스의 『모범 연애 소설』 중의 「사랑의 환멸과 미덕의 대가 El desengaño amado y premio de la virtud」<sup>7)</sup>에서 마녀 루크레시아

5) 실질적으로 Sebastián Cirac Estopañan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톨레도에서 행해진 종교재판에서 16-18세기 동안에 66명의 남성과 200명의 여성이 마법을 부렸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는데 이들은 Celestina처럼 주로 마술적 힘을 통해 사랑이 맺어지도록 하는 일을 행하였다.

6) Miguel de Cervantes, *Novelas ejemplares*, III, Ediciones de Juan Bautista Avall-Arce, Madrid, Castalia, 1987, p. 292

7) 이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 페르난도 Fernando는 톨레도의 한 과부의 아들로 도나 하나 doña Juana에게 결혼을 맹세하며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를 농락한 뒤, 자신의 어머니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서 그녀와의 결혼을 미룬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데 없는 가없는 처지가 된 도냐 하나는 로마에서 온 친구 루크레시아 Lucrecia에게 남편을 빼앗긴다. 루크레시아는

Lucrecia는 앞에서 언급된 마녀에 대한 부정적인 속설(俗說)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마법이 지닌 초자연적인 힘을 악마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루크레시아를 직업적인 마녀 hechicera라기보다는 악마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마녀 bruja에 가까운 마녀로 묘사하고 있다.<sup>8)</sup> 마리아 데 사야스는 이 작품에서 루크레시아라는 마녀를 통해 여성의 성적 에너지를 악마화할 뿐 아니라, 알칼라 학생 마법사를 통해서 마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맺어주는 뚜쟁이 alcahueta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인하고 결혼하거나, 결혼 이후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남성들에게 복수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을 보여준다.<sup>9)</sup> 또, 페르난도는 남성들이 갖는 성적 불구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이 원치 않는 여인에게 홀려서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움직여질지 모른다는 여성에 대한 막연한 위협을 가시화하는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절대왕정 시대, 중앙집권의

은갖 마법을 써서 돈 페르난도를 도나 화나에게서 떼어놓고 자신이 독차지한다. 도나 화나는 남편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알칼라에서 온 학생에게 도움을 구한다. 학생이 준 반지 속의 악마들은 돈 페르난도가 도나 화나와는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학생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도나 화나는 죽은 애인 옥타비오가 나타나 그녀가 계속적으로 마법을 쓰게 되면,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자, 놀라서 수녀원에 들어가 버린다. 돈 페르난도의 두 번째 부인 끌라라는 남편이 어떤 불가항력에 이끌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하녀로 분장하여 이곳 저곳 남편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를 만나게 된다. 끌라라는 페르난도가 자신을 버리고 간 이유가 루크레시아의 마법임을 알아내고, 수탉의 눈을 가렸던 찬을 벗겨 마법에 걸려있던 남편을 구해내게 된다. 바로 그때, 페르난도는 마법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에 분노한 루크레시아는 남편을 본따 만든 인형 모형을 핀으로 찌른 뒤에 저주하면서 사라져버린다.

- 8) hechicera와 bruja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된 것은 사탄과의 연계성이었다. 즉, hechicera의 경우는 사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직업적으로 마법을 부리는 경우이고, bruja는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어서 신을 배반하여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사악한 반기독교적 의도에서 마법을 부리는 경우이다. Anthony J. Cárdenas-Roturno, "Rojas's Celestina and Claudina in search of a witch" *Hispanic Review* summer 2001, Num. 3 (Vol. 69), University of New Mexico, Albuquerque, p.285
- 9) María Esteban이 폴레도 법정에 고소된 자료들을 수집한 것 중에 도공장인 Juan de la Casa라는 남성이 자신의 전 애인 Isabel Martín-그녀는 Logaña란 별명을 지닌 자의 부인으로, 남편 몰래 돈 환과 불륜의 관계를 가져왔다-이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마법을 써서 자신을 성불능자로 만들었다고 고소한다. María Elena Sánchez Ortega, "Woman as Source of Evil in Counter-Reformation Spain", *op. cit.*, p.202.



공고화에 방해가 되었던 주변세력에 대한 공포나 위협이 악의 총체적 이미지인 마녀로 가시화되고,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남성들이 갖고 있던 여성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여성과 마녀를 연결시키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사랑의 힘 *La fuerza del amor*」에서 사야스는 라우라 Laura라는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 가부장 사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과 마법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10)</sup> 이 작품에서 마법은 더 이상 이성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 혹은 사회적인 제도권 내에서 소외되고 낙담한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초월적 능력에 의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누구에게 나의 고통을 치유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냇두리를 듣고 동정해줄까? 누가 나의 얼굴을 적시는 눈물을 보아줄까? 나의 아버지, 나의 오빠들,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줄 수 없어. 괴로움의 위로자가 되는 하늘마저도 내게는 귀머거리가 되는구나!(241)

라우라를 비롯한 당시 여성들은 그녀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해줄 수 없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마법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힘에 의존할 수밖에

10) 라우라는 어머니 없이 남자 중심으로 구성된 아버지와 두 오빠들 사이에서 자라나면서 사랑을 받지만, 결국 잔인한 남편 디에고 Diego에게 맡겨지게 된다. 돈 디에고는 이전의 애인 니세 Nise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라우라를 멀리하고 그녀를 육체적으로 학대한다.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으리라는 고독감에 빠져있던 라우라는 남편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마법사를 찾아간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교수형에 처한 남자의 머리털과 수염, 그리고 이빨을 찾아오면, 남편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라우라는 마법사가 주문 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혼자서 한 교회당을 찾아가는다. 그리고, 그 교회당의 길 옆 공동 묘지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죄수들 시신 앞에서 무서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한편 오빠 카를로스 Carlos는 잠결에 위협에 처해있는 여동생 꿈을 꾸고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나게 된다. 그는 말을 달려오다가, 라우라가 있는 교회당 옆 길에서 말이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멈춰 서자 우연히 그녀를 발견하고 구해준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나폴리 태수에게 사실을 고해바치고, 라우라는 수녀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돈 디에고는 라우라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같이 살자고 간청하며, 부왕에게 Nise를 그녀 대신 수녀원에 가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라우라는 돈 디에고와 같이 살기를 거부하여 수녀가 되고 돈 디에고는 전투에서 죽게 된다.

없었다. 반면에 부왕은 라우라가 남편에게서 받은 부당함을 증재해 줌으로써 마법의 초자연적인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정치적인 권력으로 해결해준다. 이 장면은 마녀사냥이 국가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려는 통일 문화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뤼상블레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으로 사야스의 체제 옹호적인 프로파간다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사야스는 마법에 대해 ‘속임수’나 ‘장난’이니 하는 표현을 쓰고 마법사들이 돈이나 벌 공리로 사람들을 현혹케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마법의 실질적인 효능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사야스가 당시 가부장적인 체제를 옹호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작품이 지닌 서사적 기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범 연애 소설』은 『데카메론 Decameron』의 서사전통을 따라, 성(gender)에 관련된 이슈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성과 관련된 갈등과 긴장은 열린 공간 속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마법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sup>11)</sup> 라우라가 취하고자 했던 사랑의 묘법이 실효성을 갖는가에 대해서 전혀 시험할 기회가 주어지는 않았지만 라우라가 교수형에 처해진 시신을 찾아가갈 때, 그녀의 오빠가 꿈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그녀를 구하러 달려오는 대목에서 당시 세간에 퍼져있던 마법의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마법의 효력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들이 마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여성들이 사회 내에서의 얼마나 열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아주 열등한 위치에 있었고 여성의 지위는 노예는 아니더라도 높은 등급의 하녀로서의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귀족 문학 장르, 특히 기사소설과 목가소설에서 보여지는 귀부인이나 혹은 여인에 대한 과장된 숭배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가수와 같으며 재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하다가 후에는 남편에게 예속되

11) 마력의 효능이라든지, 마법사의 처형여부, 신의 섭리와 마력과의 상하관계 등에서 마리아의 작품은 어떠한 하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다 포용하고 있는 만화경이 된다. 이처럼 마리아 데 사야스는 애매모호한 열린 결말을 통해 당시 세간에 떠도는 마법과 관련된 속설과 공식적인 역사가 시사하는 것 사이의 바로코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Kenneth Stackhouse, "Narrative Roles and Style in the Novelas of María de Zayas," Ph. D. diss., University of Florida, 1972, p. 68.

었다. 그리고 결혼이란 마치 주인이 자신의 땅을 제멋대로 처분하는 것처럼 부모나 보호자들의 몫이었다.<sup>12)</sup>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사탄과 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반기독교적 인식에 근거한 마녀에 대한 이단 심판은 외적으로는 종교적·사회적 ‘정화’의 의미를 지니면서 내적으로는 여성은 성적으로 부정한 존재라는 혐오감을 조장시키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야스는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하는 여성=타자의 등식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며 그녀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 정체성은 무엇인가?

### III.2. 「무죄의 응징 La inocencia castigada」와 남성 마법사의 등장

마리아 데 사야스는 루크레시아와 같이 위협적인 힘을 지닌 마녀를 통해, 민간에 퍼져있는 부정적인 마녀상을 따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남성 마법사를 등장시키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마법은 남성에 의해 사용되는 것과 여성에 의해 사용되는 것,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남성에 의한 마법은 주로 아랍적 전통에서 유래된 비술 *occults arts*로서 점성술이나, 연금술과 관련된 것이었다.<sup>13)</sup> 사야스의 작품에서 남편에게 버림당한 여인들이 사랑을 되찾기 위해 남성 마법사를 찾아다니고, 자신의 구애를 거부하는 여인에게 복수하거나, 강제로 그녀를 차지하려는 남성들도 마력의 힘을 빌리려 한다.

구체적으로 남성 마법사가 등장하는 작품은 「무죄의 응징」, 「박해 당하는 승려자 La perseguida triunfante」이다. 전자의 작품에서 돈 디에고 *don Diego*는 유부녀인 도냐 이네스 *dona Inés*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도냐 이네스의 냉담한 태도에 실망한 돈 디에고는 그녀의 마음을 들여보기 위해서

12) Ludovik Osterc, *El pensamiento social y político del Quijote*. México, UNAM, 1988, p.98

13) 셸먼 Sallman은 이런 유형의 마법을 부리는 자들은 “보석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밝히고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 영을 불러내거나, 남성들을 강인하고, 불사조가 되게 할 수 있는 부적을 만들도록 하는 등에 종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런 강신술의 요소가 크게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1570년대 있었던 모슬렘(*los moriscos*)들-그들이 강제로 쫓겨나면서 금은 같은 재물을 몰래 땅에 숨겨놓았다는 일설이 대중사이 널리 믿어지면서-의 강제 해산과 1609년의 추방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모슬렘 남자 마법사를 찾아간다. 그 마법사는 이네스를 본뜬 인형을 만들어 그 가슴 쪽에 금으로 만든 핀을 꽂아놓고 그 머리 위에 초록색 초를 얹어 놓는다. 그리고 그 초에 불을 붙이면, 이네스가 곧장 디에고를 찾아 올 것이라고 말한다. 마법사의 말대로 디에고가 불을 켜자 이네스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디에고에게 다가와 그와 같이 잠을 자게 된다. 그리고 불을 끄면, 그녀는 몽롱한 상태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행위는 얼마간 계속되나 곧 남편과 이웃사람들에게 발각된다. 그들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고, 몇 가지 조사를 거쳐 이네스가 사악한 마법에 걸려 그 같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마술을 시행하는 자나, 이를 요구하는 자는 모두 남성이다. 이네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외간 남성과 정을 통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지만, 이것이 자의가 아니라, 돈 디에고와 모슬렘 마법사의 사악한 마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죄를 인정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스의 오빠와 올케는 그녀가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죄목으로 6년 간을 골방에 가둔 채, 소량의 음식만으로 연명케 한다. 다행히도 이 사실이 이웃에게 알려져 이네스는 구제되지만, 영양의 부족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된다. 이네스의 불륜 행위가 자의가 아니라 마법사의 농간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면서도 그녀의 오빠는 명예의 코드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네스를 처벌하고자 한 것이었다. “마술은 끝났어. 당신(이네스의 올케)과 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야. 죄 없이 고통을 당하게 해서 너(이네스)에게 정말 미안하게 되었구나 (189)”라는 고백에서 오빠와 올케 역시 이네스의 결백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네스가 양심적으로 결백하다는 당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네스를 박해하는 오빠에게서 명예의 코드와 민권사이의 갭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오빠와 올케가 처벌을 받고 이네스가 이웃주민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는 해피엔딩을 통해 사야스는 민권이 명예의 코드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마리아 데 사야스는 이네스를 홀리게 한 마법사와 돈 디에고가 남성이라는 점을 들어 사악한 여성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마녀를 남성으로 대처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동시에 마리아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는 당시 여성들의 열등한 지위를 고발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해받는 승리자」에 등장하는 남성마법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베아트리스 Beatriz를 겁탈하고 죽이려는 페데리코 Federico는 아랍 마법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그녀를 보호해주는, 성녀 마리아 la Madre de Dios의 신적인 능력은 결국 마법의 교활함을 능가하게 된다. 페데리코는 모슬렘 남자 마법사를 고용하여 마력의 힘을 빌어 베아트리스를 죽이려 한다. 모슬렘 마법사는 페데리코에게 몸에 바르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마법의 약을 주어 사람의 눈을 피해가며, 악행을 저지르게 한다. 페데리코는 공작의 아들을 죽이고 이를 베아트리스의 소행으로 누명을 씌우는 등, 갖은 방법을 다해보지만 성녀 마리아가 보호하는 베아트리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한다. 세르반테스의 「개들의 대화」에서도 까니사레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줄곧 우리가 저지른 그렇게 잔인하고 사악한 죄 역시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우리의 원죄 때문에 악마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악마도 개미 한 마리조차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내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sup>14)</sup>고 하면서 신에 대한 악마의 도전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신의 전능성을 인정한다. 성녀 마리아는 베아트리스에게 자신의 모든 죄상을 고백하는 자에 한하여 페스트를 고쳐주라는 명령을 내려 왕궁으로 되돌려보낸다. 마침 페스트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던 페데리코는 왕 앞에서 자신의 거짓을 고백하지 않겠다던 모슬렘 마법사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간의 죄상을 모두 고백하여 병 고침을 받고, 베아트리스는 불륜으로 실추되었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 페데리코의 고백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남성들에 의해 조장된 것임을 스스로 시인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베아트리스의 병 고침의 기적을 통해 사야스는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데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성녀 마리아의 명령을 통해 여성의 명예는 곧 신이 부여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모슬렘 마법사는 페데리코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루크레시아처럼 연기와 함께 사라져 인간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형상을 한 악마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악마적인 힘을 지닌 마녀의 형상을 사악한 여성의 이미지가 아닌 남성으로 묘사함으로써 사야스는 남성의 타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의 타자로서의 남성을 바라보는 혁신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타자성의 복원을 추구하는 시각

14) Miguel de Cervantes, *Ibid*, p.298

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게 된다.

#### IV. 「가장 불경한 복수 La más infame venganza」: 남성 중심 주의 담론의 전복과 해체

자아의 해체와 주변적인 것의 부상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주목할만한 것이었다. 특히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부계질서가 배제시킨 비주류와 타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페미니즘 이론의 중심 사상과 맥을 같이했다.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거의 예외 없이 다른 중요한 것들을 제외시킴으로써 그 존재 이유를 부여받고 정의되는 이항대립적 사고체계를 기반으로 하였다.<sup>15)</sup> 이런 이항대립은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어떤 주종의 개념을 내포하는데 데리다에게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 자체가 오류였던 것이다. 데리다의 해체는 말에 우선권을 주는 이분법적인 서열의 전복인 동시에 이분법적인 사고 자체의 무효화였다.

이처럼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남녀의 이분법적 구조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에서 데리다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질은 호소력을 지녔다. 페미니스트들은 데리다식의 해체를 통해서 ‘여성-감성-촉각-주변’이 ‘남성-이성-시각-중심’의 하위라는 계급구조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식수 Helene Cixous는 「메두사의 웃음 The laugh of the Medusa」에서 “이제 여성이 멀리서부터, 항상성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마녀들이 살아 활동하는 황야로부터, 지하로부터, 문명 너머로부터 돌아오고 있다”<sup>16)</sup>라고 하면서 문화 주변의 존재로, 타자로 취급되어 왔던 여성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해야함을 주장해왔다. 주변인인 마녀에 대한 편견이 타자인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박해로 이어지면서 여성의 사악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은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가? 마리아 데 사야스는 남성이 지닌 여성적인 특성과 여성이 지닌 남성적인 특성을 통해 남성/여성, 이성/감성, 말/글,

15) Derrida, *Writing and Difference*, Translated by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6

16) Josephin Donovan, 「Feminist Theory」, 『페미니즘 이론』, 김익두·이월영 편, 문예출판사, 1993, p. 213-214.

같은 이분법적 사유 체계를 해체시키고 있다.

「가장 불경한 복수」에서 음탕한 욕정으로 가득 찬 까를로스 Carlos는 결혼하겠다고 거짓 맹세로 옥따비아 Octavia를 유혹한다. 그러나, 까를로스는 옥따비아를 차지하자 곧 싫증을 느끼고, 그녀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핑계삼아 아름답지는 않지만, 돈 많은 상인의 딸 까밀라 Camila와 혼인을 결심한다. 까를로스는 옥따비아를 피어 수녀원으로 들어가게 하고 선물 공세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안심시킨다. 그리고 그녀가 수녀원에 들어간 틈을 타 까밀라와 결혼을 하고 그 사실을 편지로 알린다.

여기서 우리는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정형이 붕괴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가부장적 체제 내에서 정형화된 여성성은 관능적이고, 나약하며, 남성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는 악의 원천이었다. 당시 법 규범상 결혼에서의 양성(兩性) 간 권리는 동등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결혼은 ‘악한 성(sexo)’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로 특징 지워졌다. 그러나, 까를로스에게서 ‘악한 성’의 특성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니콜라스파다시니(Nicholas Spadaccini)는 1600년대 스페인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굴레 속에 들어가 부모 허락 없는 비밀 결혼이 금지되고, 선택의 자유는 축소되어 아버지와 남편들에게 여성들은 교환 물건으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sup>17)</sup> 배우자의 선택을 아버지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까를로스의 나약함에서 스파다시니가 지적하는 17세기 여성들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까를로스가 결혼의 맹세를 저버리고 글로써 옥따비아를 속이려든 것에서도 악한 성의 면모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까를로스의 변덕은 무책임과 냉담함 속에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방치시키는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리아 데 사야스는 여성이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남성들이 자신의 결혼 맹세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했다고 보았다. 그녀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의 원인이 남성에게 있음을 역설하면서 남성들이야말로 명예의 코드를 저버린 일차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죄는 스스로를 덜 완벽하다고 생

17) Miguel de Cervantes, Edición de Nicholas Spadaacini, *Entremeses*, Madrid, Cátedra, 1985, pp.24-25.

각하는 자의 죄보다 더 중하다. 현명한 남성의 어리석음이 여성의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 여성들의 특성이 잘 속는 것이라면 남성들의 특성은 변덕스러운 것이다. 여성들이 허영에 잘 빠지는 만큼, 남성들은 배반을 잘 한다. 따라서 여성들이 잘 속는 만큼 그들을 속이는 남성들은 잔인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여성들의 과실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결국 배반을 잘하는 남성들이었다(114).

특히 옥따비아를 유혹하기 위해 보낸 편지에서 말중심주의 logocentrismo의 형이상학적 의미 체계가 전복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로고스 중심주의에서는 구어를 문어보다 높이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문어는 단지 구어를 기억나게 보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어에 대한 보완이자 보충<sup>18)</sup>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 지닌 현존을 굳게 믿었던 고대 철학자들은 진리는 씩여지면 오염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글이 철학적 진리의 권위를 손상시킬 것을 두려워하면서 글에 대한 혐오를 표시해 오곤 했다. 그러나 데리다는 글이 지닌 물질적 속성으로 인해 말을 오염시킨다는 기존의 주장을 ‘폭력적인 서열제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서열을 지지한 서구 철학을 비판하였다.<sup>19)</sup>

카를로스 뿐 아니라, 여성을 유혹하고 농락하려는 남성들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다.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 페드로의 부인 로셀레타 Roseleta를 유혹하는 돈 환과 사촌 형의 부인 베아트리스 Beatriz를 유혹하려 드는 페데리코는 모두 편지를 보내어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 든다. 이에 대해서 베아트리스와 로셀레타는 당찬 남성적인 어조로 그들의 유혹을 단호하

18) 데리다는 이러한 ‘보충’이 지닌 의미를 정의하기를 “본래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노예화하고 제거시키고 분리시키며 위장시키는” 이라고 하면서 글이 말의 보충인 동시에 말을 대신한다고 하였다.

19) 데리다는 자연 문명에 대해서 앞선다고 하지만, 순수한 현존으로서의 자연은 언제나 이미 문명에 의해 오염되어 있음, 즉 본원적인 자연이란 없고 다만 우리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신화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 선/악에서 선은 신과 더불어 완전한 현존을 갖는 반면, 악은 이차적 존재이고 보충이, 원래의 조화된 존재를 오염시키는 것이 된다는 전통적 형이상학적 사유 구조에서 벗어나,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접하기 전에 선의 개념자체 존재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들어 선/악의 서열 제도를 해체하고 있다. Raman Selden *A Reader'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현대문학』, 문학 지성사, 1987, p.133에서 재인용



게 물리치고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킨다.

나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나의 명예를 손상시킬 조금이라도 헛튼 생각을 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면, 나의 남편에게 고해서 남편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고, 만약 그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직접 두 손으로 죽일 거란 점을 명심하세요(122)

그래서 허위=글=여성의 연결고리는 진실=말=여성으로, 진리=말=남성의 연결고리는 거짓(속임수)=글=남성으로 대체되면서 로고스 중심주의에 따른 진리/보충과 선/악의 형이상학적 서열구조가 해체되게 된다. 또, 전통적인 사유체계에서 나타나는 말과 글의 차등적인 위치의 붕괴는 곧 남성과 여성의 차등적인 위치의 붕괴와 동일시되면서 여성은 사악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모범 연애 소설 *Novelas ejemplares y amorosas*』의 제 2부는 서술화자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 남성들에 의해 침묵 당해 온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 남녀간의 서열 제도를 해체하려는 사야스의 페미니스트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내게 있어서 고차원적으로 여성들을 일깨우는 방식은 오랜 동안 가정적인 폭력에 희생당한 이름 모를 수많은 여성들에게 이름과 목소리를 부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사야스 소설의 목적은 목소리 없는 이 여성들에게 겨우 오늘에 이르러서야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이야기를 주는 것이다<sup>20)</sup>

「박해받는 승리자」에서 베아뜨리스는 “역병 (396)”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멸망하려는 순간,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남장(男裝)을 하고 등장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체제가 갖는 모순과 결점을 역병으로 상징할 때, 베아뜨리스의 남장은 남성의 편견과 이기심으로 왜곡된 여성, 즉 타자로서의 여성은 결코 남성 중심사회가 지닌 모순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있다.<sup>21)</sup> 그렇다면, 사야스가 추구하는 새로운 여성상은 무엇인가?

20) Patsy Boyer, *Ibid.*, p. 24.

21) 이 동시에 성 역할의 유동성은 캐롤린 하일브룬(Carolyn Heilbrun)이 주장하듯이

버지니아 울프 Virginia Woolf는 『자신의 방 *A Room of One's Own* (1935)』에서 남녀간에 근본적인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했다. 울프가 언급하는 양성성이란, 편협하고 인습적인 기존의 이분법적 인식을 벗어나 인간 정신에 내재해있는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를 의미하는데 양성성은 여성 문제를 남성과의 대립과 갈등의 틀에서 파악하는 대신 새롭고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인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옥파비아가 배신당한 사실을 알고, 체념하지 않고 복수를 다짐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동시에 ‘남성적 여성’의 면모를 드러낸 것이다. 당시 요구되어진 전통적 여인상에서 부인은 남편의 부당한 폭행에 저항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감수한 데 반해서, 남성적 성향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믿어지던 ‘남성적 여성’에서의 여성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명예회복을 달성하고자 하는 독립성을 지닌다. 이런 여성들의 독자적인 행위가 일부 남성 작가들에게는 가부장적인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사야스는 이들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함으로써 남성적인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이처럼 여성/남성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여성의 남성적 성향을 아울러 고려했던 사야스의 페미니스트적 담론에서 데리다의 탈구조적 사유체계와 울프의 양성성의 사상적 기반을 발견할 수 있다.

## V. 결론

이상에서 전통적으로 타자의 위치에서 남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사탄과 연결된 여성의 부정적 이미지가 『모범 연애 소설』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시대적 위기 속에서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마녀사냥이 체제 도전적인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공포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남성 대 여성의 대립에 대한 교정수단으로 양성성의 의미로 볼 수 있다. Rosemarie Tong, *Feminist thought: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이소영, 『페미니즘 사상』, 한신, 1995, p.47에서 재인용.

22) Virginia Woolf, *A Room of One's Own*, London: The Hogarth Press, 1935, 서지문 외 15인,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p.148

마리아 데 사야스는 가부장적인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위협적 존재로서 왜곡된 여성상을 와해시키기 위해 남성마법사를 등장시켜 마녀라고 하는 사악한 존재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타자로서의 여성을 외면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또, 자율적 주체로서의 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남성 중심의 명예 코드에서 벗어나 공격성을 보일 것을 주장한다. 공격적인 여인들은 처음에는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자신을 버린 남성과의 재결합에 있다고 믿지만, 중국에 가서는 가부장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독립된 자아를 찾는 것이 진정한 명예의 회복임을 깨닫게 된다. 「박해받는 승리자」에서의 베아트리스나, 「무죄의 응징」에서의 이네스, 그리고 「사랑의 힘」의 라우라는 모두 남편이나, 애인들에 의해 버림을 받았다가 성녀 마리어나 부왕의 도움으로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고 청혼을 받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수녀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혼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의 명예를 보장해주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야스의 작품에서 수녀원은 남성의 횡포로부터 자아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자아 찾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남성의 타자로서의 여성에서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여성으로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사야스의 페미니스트적 시각을 발견하게 된다.

#### 참고문헌

- Beauvoir, Simone de. *Feminist Theory*, 『페미니스트 이론』, 김익두·이월영 편, 문예출판사, 1993.
- Beauvoir, Simone de. *Le Deuxième Sexe*, 강명희 역, 『제2의 성』, 하서, 1995.
- Woolf, Virginia. 서지문 외 15인,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 Derrida, J. *Writing and Difference*, Translated by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Cádenas-Rotunno, Anthony J. "Rojas's Celestina and Clauina: In Search of a Witch," *Hispanic Review*, summer 2001, Num.3
- Hutchinson, Steven. "Las brujas de Cervantes y la noción de comunidad femenina," *Cervantes*, 1992, 2 de diciembre.
- Lea, Henry C. *A History of the Inquisition of Spain*, Vol. 4, New York, Ams Press. 1966.

Spadaccini, Nicholas. *Miguel de Cervantes: Entremeses*, Madrid, Cátedra  
1985.